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2026년 물관리현장설명회 및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 개최

[김남현]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2026년 물관리현장설명회 및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 개최



© 남도매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는 5월 7일 진도군 향토문화회관에서 '2026년도 물 관리현장설명회 및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업인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수리시설 감시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현장의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진도지사의 금년도 물관리 업무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진행된 행사를 통해 진도지사의 운영계획과 물관리 현황에 대한 업무공유가 이뤄졌으며, 지사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이어진 안전교육에서는 안전관리 전문가가 참석하여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및 농업중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안전 사고를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수리시설감시원들의 안전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 ©남도매일

특히 이날은 진도소방서에서 참석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하여 여름철 현장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물관리설명회를 통해 농업용수 관리와 안전, 농업현장 목소리를 하나로 잇는 소중한 만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진 지사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용수의 가치와 공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리시설감시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도지사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